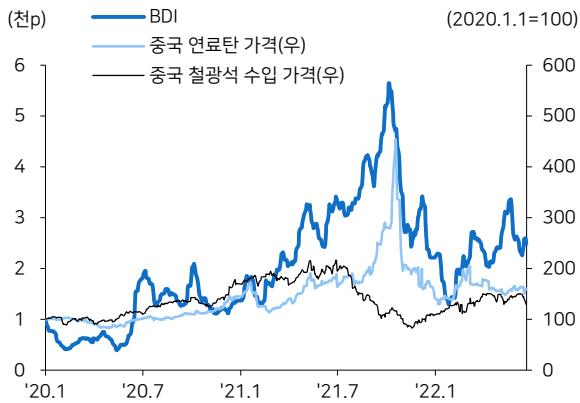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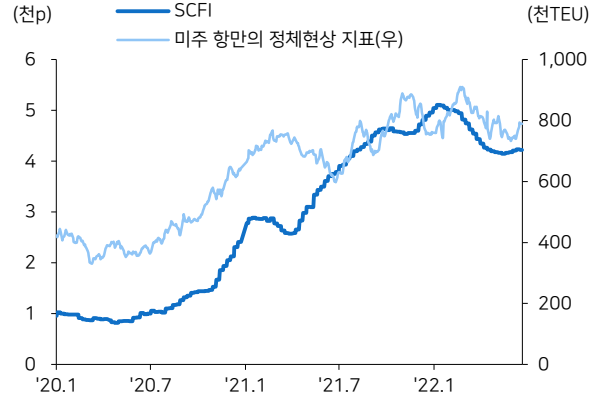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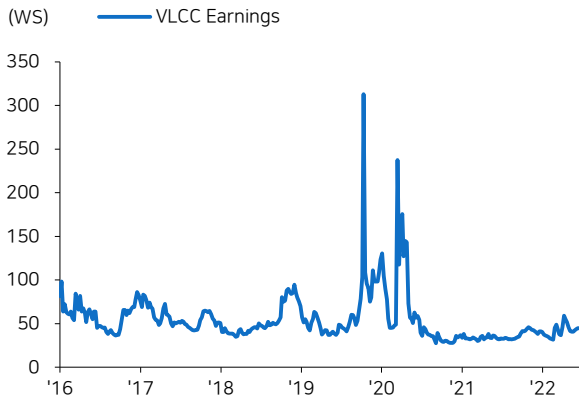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484.0p(-11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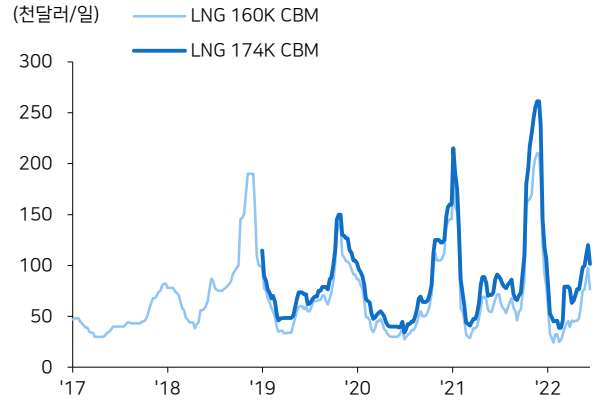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222.0(-11.4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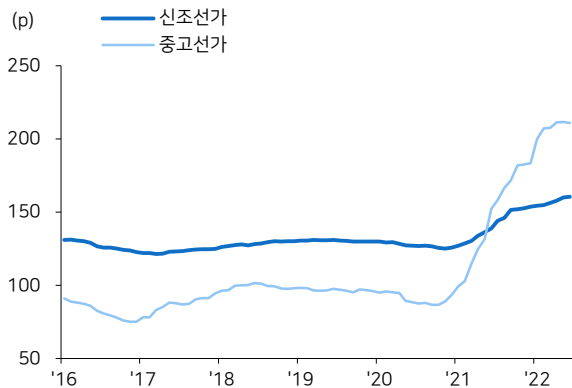
VLCC Spot Rate 44.7p(-0.1p WoW)



LNG Spot 운임 76.8p(-20.8p WoW) 101.5p(-18.5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0.8p(+0.4p WoW) 210.8p(-0.0p WoW)



항공시장 지표 254.7p(+3.7p DoD) 85.0p(+0.4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중국 해외입국자 격리 완화...난징 등 8개 도시 격리 반으로 줄어

중국이 격리기간 단축 등 방역정책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난징·우시 등 중국 주요 8개 도시에서 기존 '14일 집중 격리 후 7일 관찰'에서 '7일 격리 후 7일 관찰'로 격리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됨. 청두·샤먼·닝보의 경우 10일간의 집중 격리 정책을 적용함. 비자 발급 신청 절차도 간소화됨. (아시아경제)

VLGC rates plunge 30% as cargoes cancelled - but trade window opens up again

미국 걸프만-아시아간 프로판 거래 차익실현이 어려워지며 VLGC 운임이 30% 하락했다고 보도됨. 중동-아시아 항로 Spot운임은 한 주간 33% 하락한 바 있음. 교역이 줄어들며 수출화물도 취소됨. 한편, 브로커들은 선복량 부족으로 운임의 단기 반등을 전망함. (Tradewinds)

Secondhand VLCC sales surge in anticipation of stronger markets, says Affinity

VLCC 중고선가가 3년래 월별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Affinity에 따르면, 중고선가 상승에도 5월기준 17척이 거래되었고, 대형 선박이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짐. 한 브로커는 PC시장이 좋아지면 원유시장이 자연스럽게 강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Tradewinds)

러시아 가스공급 축소에 유럽 석탄발전 재가동 잇따라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자 독일·오스트리아에 이어 네덜란드가 석탄발전 의존도를 높이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네덜란드는 그동안 환경문제를 이유로 석탄발전을 35%까지 줄였지만, 2024년까지는 석탄발전소를 다시 최대한 가동하기로 결정함. (뉴시스)

글로벌 무역량 증가 전망

AP Moller-Maersk가 글로벌 무역량 증가를 예측했다고 보도됨. 리쇼어링 등 각국이 세계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공급망 재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무역현황과 관련해 실질적인 변화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 기인함. CEO는 미국·유럽 제조사들은 여전히 아시아 전역에서 추가 공급처를 찾고 있으며, 세계가 소비재 생산 방식에 극적인 변화를 중단기적으로 주기는 어렵다고 언급함. 한편, 세계경제 성장 정체로 수요가 위축되며 2022년 상반기 물동량은 감소할 수 있다고 언급함. (선박뉴스)

Eni wants drillship for delayed Mozambique wildcat

이탈리아 Eni가 모잠비크 앙고체(Angoche) 유전에서 사용할 드릴십을 찾고 있다고 보도됨. 드릴십 선주들은 6월 22일까지 참여의사를 밝혀야함. Eni는 해당 드릴십을 2022년 4분기에 사용할 예정임. (Upstream)